



광양제철소 '희망하우스' 입주식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최근 글로벌 볼런티어워크를 맞아 첫 번째 '희망하우스' 인 덕례지역아동센터 입주식을 가졌다. 광양제철소는 올해부터 3년간 지역아동센터 등 다수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복지시설을 개선하는 '희망하우스' 사업을 추진한다.



외국인 노동자 무료 진료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최근 센터 내에서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무료진료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무료진료는 브릿지의료인회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사됐다. 브릿지의료인회의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올해로 세 번째 무료진료 행사를 함께 실시하고 있다.



농협광주본부-KT&G전남본부, 농촌일손돕기

농협광주본부와 KT&G전남본부는 최근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마을을 방문해 일손돕기를 펼쳤다.



롯데백화점, 택시기사 줄임예방캠페인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난달 26일부터 택시기사들의 줄임운전 예방을 위해 줄임방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8월까지 진행된다.

“북한서 ‘사랑의 밥차’ 운영이 꿈”

“봉사의 즐거움을 알게 되면 도중에 멈출수가 없습니다” 지역에서 26년째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여성자씨(60).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그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을 여섯을 적 부모님이 보여준 나누는 삶이었다.

여씨의 부모는 시골에서 농사를 하고 나면 소작농들에게 첫방아를 쥘 쌀을 먼저 주기도 하고 명절 때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떡국을 끓여주는 등 나눔의 삶을 살았다고 한다.

당시만 해도 학교에 다녀오면 동네 어르신들이 물려와 음식을 드시고 거의 함께 살다시피해 ‘절대로 부모님처럼 안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려운 이웃에게 많은 걸 배울던 부모님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다.

평범하게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주변 친구들과 수다를 떨던 중에 우연히 ‘생

소외계층 식사 대접...따뜻한 나눔 실천
“부모님 영향으로 베품의 즐거움 알아”

■ 26년 지역사회봉사 여성자씨

산적인 일을 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와 그다음날부터 친구들과 장애인 보육시설에서 봉사를 시작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현재는 6년째 사랑의 밥차 운영을 주도하고 요양원서 그림그리기 봉사, 중·고등학생 대상 자원봉사 개념교육 강사로 활동하느라 하루하루가 너무 빠르게 지나간다.

사랑의 밥차는 혹서기와 혹한기를 제외하고 매달 꾸준히 소외 계층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한다.

최근 다리를 다쳐 휠체어에 의존하고 있지만 봉사활동에는 아무런 제약이 되

지 못한다. 여씨는 “다리를 크게 다친 후 봉사활동에 어떻게 다녀야 할까 고민했었는데 새로운 봉사의 전환점을 마련한 계기가 된 것 같다”며 “휠체어 장애인들의 시각에서 보니 아직도 내가 하지 못한 봉사가 있음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최근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면서 한가지 바람이 생겼다는 여씨는 북한에서 사랑의 밥차를 운영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여씨는 “뉴스를 보면 조만간 북한과



우리나라가 서로 교류를 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든다”면서 “북한에 어려운 동포들이 많이 있는데 사랑의 밥차를 북한에서 운영할 수 있다면 더 뜻 깊은 삶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종찬 기자



호남대, 상하이대 복수학위 과정 선후배 멘토링

호남대학교(총장 서강석)는 지난 1일 4호관 강의실에서 중국어학과(학과장 이정림) 졸업생 노연승 씨(12학번, 상하이대 대학원 석사과정)를 초청, ‘상하이대학 2+2 복수학위과정 선후배 멘토링 대화의 시간’을 진행했다.



광주세관, 보훈의 달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광주본부세관장(세관장 주시경)은 4일 세관장과 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보람 있고 가치있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보내기 위해 국립5.18민주묘지와 광주독립운동기념탑, 현충탑, 4.19혁명희생자추모탑을 차례로 참배 했다고 밝혔다.

참배시 세관장을 비롯해 노조대표, 최고연장자, 여직원 대표를 선정하여 각각 차례로 분향함으로써 조직의 화합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

한편, 이날 행사는 순국 선열과 독립운동가 및 민주화 열사의 숭고한 희생과

나라 사랑 정신을 기리는 동시에 이제까지 간부만 실시해 오던 참배를 전 직원이 참여해 세관 공무원으로서의 직책과 주어진 업무에 대한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공직관을 가다듬는 뜻 깊은 시간이 됐다. /서미애 기자

국립나주병원, 2018년 책임운영 평가 ‘최우수’

국립나주병원(원장 윤보현)이 행정안전부가 전국 49개 책임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국립나주병원은 이번 평가에서 중증질환자만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마음건강안심클리닉’, 정신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특화된 클리닉운영과 정신장애인 재활을 위해 직업재활장을 설치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효현 기자



6·13 지방선거 레이다 D-8

하승환 “보성군 행정연습 할 상황 아니다”

하승환 무소속 보성군수 후보는 지난 3일 KBS광주방송합동방송연설회에서 “보성군은 행정연습을 할 상황이 아니다”며 “청렴성과 행정능력을 겸비한 군수로, 군민들에 의해 검증된 하승환이 바로 답이다”고 말했다.

하 후보는 “보성군은 장기간 군수 부재라는 비상상황이다”면서 “힘과 지혜를 갖추고 정직하게 일 잘하는 사람이 군수가 돼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하 후보는 이어 “보성군의 주산업



인 농·축·수·임업을 미래지향적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자원을 개발해 전처럼 연간 500~600만명 이상이 모여드는 문화·관광·체육보성을 만들겠다”고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또 “보성읍권은 도시재생사업을, 별교읍권은 관광·스포츠산업을 발전시켜겠다”고 덧붙였다. /정근산 기자

장일 “진정한 군민 군수시대 열겠다”

장일 민주당평화당 진도군수 후보는 4일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첫 주말인 지난 2일 박지원·윤영일 의원이 진도를 찾아 집중 지원유세를 펼쳤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진도를 5일장에서 열린 지원 유세에서 “진도분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드리겠다. 장일 후보를 진도군수로 만들어 주셔야 진도발전을 이룰 수 있다”며 “장일 후보가 당선돼 세월호 피해보상과 진도읍에서 평택간 4차선 확포장 사업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장 후보는 “권위주의의 상징인 군수 관사를 없애고 영·유아 및 초·중·고등학생 놀이방을 운영하는 한편 군수실도 군민들에게 개방하겠다”며 “소통하는 행정, 경제력 있는 행정,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쳐 진정한 군민 군수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권세도 “노후주택 개선 등 도시재생 추진”

권세도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장 후보는 4일 “원도심의 노후주택 개선을 지원하는 방식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무분별한 도시개발을 억제하고 원도심 기능을 살리는데 집중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도시재생 관련 정책을 ‘중장기 현안시책’으로 분류해 단계별로 추진하겠다”며 “도심 외연을 확장하기 보다는 도시재생과 노후공동주택



리모델링, 주거환경 개선 등에 중점을 두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특히 “도시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성장한계선을 도입하겠다”며 “한계선 밖의 도시개발사업 등은 가급적 지지하는 방향의 정책을 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근산 기자

허석 “여순사건 70주년 특별법 제정해야”

허석 더불어민주당 순천시장 후보는 4일 여순사건 70주년을 맞아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허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948년 10월19일 발발한 여순사건으로 좌익이든 우익이든 광복 직후 여수와 순천을 비롯한 전남 동부지역 인민들은 여순사건으로 초토화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 4·3항쟁과 연계된 여순사건의 피해자는 전남 동부지역 주민들이기 때문에 하루 빨리 특별법을



제정해 진상규명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제대로 된 보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해 지역인 전남 동부지역의 지자체는 물론 시민단체, 중앙정부를 망라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70주년이 되는 10월 19일 이전에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근산 기자

이길운 “해남교육 큰 그림 그리겠다”

이길운 더불어민주당 해남군수 후보는 4일 “안전한 보살핌과 공동체 삶의 회복에 이바지하는 해남교육의 큰 미래 그림을 그리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열악한 농어촌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아이들의 보살핌을 섬세하게, 안전은 책임있게 증명해 나가겠다”며 “학생들이 타지로 떠나지 않고 마음껏 자신의 꿈의 나래를 펼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고교생 모두가 장학금을 받는 보편적 복지 개념의 장학시



스템 구축, 전남도와 교육지원청과의 협력을 통한 교실 공기정정기 설치, 학교 급식 신선식품 100% 친환경 식자재 공급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책 읽는 해남을 위한 독서공원 조성 같은 실질적인 농어촌 교육환경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근산 기자

서동욱, “주민에게 힘이 되는 도의원 될 것”

서동욱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의원 후보(순천3)는 4일 “항상 주민들에게 힘이 되고 자부심이 되는 도의원이 되도록 열정을 다해 뛰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 후보는 이날 아이들과 청년,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 공약을 제시했다.

아이들과 청년들을 위한 공약은 미세먼지와 석면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청년구직수당 도입, NON-GMO 학교급식 실시가 핵심이다. 또 지역발전을 위해



2020년 순천 4차 산업 박람회 성공 개최 지원, 울촌·해룡산단의 활성화, 연향동 교통주차환경 획기적 개선, 공동주택 지원사업 확대 등을 약속했다. 서 후보는 “석면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도청과 도교육청의 예산을 증액하고, 청년구직수당 도입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정근산 기자